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결과



1. 일시·장소 : ‘25. 3.12(수)~13(목), 한국 서울 * 3.13(목) 본회의
 - 환영 리셉션(3/12) : 롯데호텔서울 36F 벨뷰스위트
 - 본회의(3/13) : 롯데호텔서울 2F 에메랄드룸
2. 주최기관 : 한일경제협회, 한국무역협회,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3. 참 가 자 : 총 70명
 - 한국측 : 이인호 체어맨(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44명
 - 일본측 : 아소 유타카 체어맨(아소시멘트 회장) 등 26명
4. 회의주제 :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
5. 회의 개최결과

-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상정 의제인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협력’의 실현방안을 논의하는 사전 전문가회의로서의 기능 수행
 -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경제계 차원에서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굳건한 파트너십 구축 및 경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

□ 주요 제안내용

- 한일 경제연계 확대 및 폭넓은 다양한 교류의 실현 방안 제안
 - (韓) 수소산업분야 협력 (① 수소시장 확대·수소가격 저감, ② 동료만들기·경쟁과 협력, 표준화·규칙만들기(충전소), 정책협력(수소도시, 공급망), ③ 수소·탄소중립 분야의 글로벌 무대 협력 및 성공 쇼케이스 전파)
 - (日) 관광산업 관점에서의 한일경제연계 확대 (① 국경없는 인적 이동·관광을 통해 상호보완과 가치를 공동창조함으로써 경제연계·발전, ② 양국 간 사전 입국심사의 조기 실현, ③ 한일 국적 보유자 도항 간소화(여권없는 왕래 실현), ④ 한일판 생계협정 실현(입출국 심사없는 왕래))
 - (韓) 향후 한일 경제협력의 방향
 - (① 기존 주요 산업(자동차, 반도체 등)에서의 경제협력, ② LNG, 핵심광물 등 천연자원 확보, ③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수소, 암모니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④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 분야 협력, ⑤ 고령화 대응을 위한 실버산업에서의 협력, ⑥ 글로벌 시장 및 제3국 시장에서의 한일 협력, ⑦ 인력 및 정보 교류를 통한 한일 중소기업 간 협력, ⑧ 중장기적 경제통합을 위한 CPTPP 가입 및 한일FTA 구상)
 - (日) 한일 지역간 교류 확대(미야기현의 한국과의 교류 잠재력)
 - (① 제주올레-미야기현 협정 체결, ② 한국 기업의 미야기현 중소기업 시찰 수용, ③ 우송정보대학(대전)-미야기현서울사무소 산학협력 협정)
- 기타 한일관계에 관한 제안
 - (韓) (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 ② 미래 에너지 확보, ③ 탈탄소 사회 구축, ④ 대외 통상환경 공동대응, ⑤ 영남-큐슈 지역활성화)
 - (日) (① 지역연계, 서플라이 체인 강인화 등 경제계 의견을 정치·행정제언, ② 비즈니스에서 한일은 많은 부분에서 보완관계, 액션플랜 작성)

6. 주요 발표 및 토론내용

개회인사

○ (한국측 체어맨/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 왔음
-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며 도쿄타워와 N서울타워에서 공동 점등식이 개최되었으며, 양국이 새롭게 맞이할 60년을 어떻게 함께 펼쳐나갈지 기대를 안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시점

[한·일 경제 및 교역 규모]

-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두 국가로서 **향후 경제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양국의 경제 규모는 ‘24년 기준 전 세계 GDP의 약 5.6 퍼센트, 한국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약 11 퍼센트를 생산, 일본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작년 기준 2,373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며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25.4 퍼센트를 차지
- 양국의 교역 수준을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의 제4위 교역 파트너**, 한국 전체 교역에서 5.9 퍼센트인 772억 달러를 기록. **한국은 일본의 3대 교역 파트너**로서 일본 전체 교역에서 5.4 퍼센트를 기록, 양국 간 경제적 연계성이 견고함

[인적교류 활성화]

- 작년 한 해 양국 간 인적 교류는 1,200만 명을 넘어서며 **최다 수준을 기록**, 최근 논의 중인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실현된다면, **한·일 간 비즈니스 및 관광 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것임**
- 인적 교류의 확대는 한·일 양국의 경제,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임

[한·일 협력 현황]

- 2023년 6월에는 8년 만에 100억 달러 규모로 **한·일 통화 스와프**가 재개되어 양국 간 경제적 신뢰를 재확인
- 지난해에는 6년 만의 양국 산업장관 회의를 통해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기로 합의

- 2024년 일본의 한국 투자 신고액은 61억 2,105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6%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
- 반도체 · 배터리 · 첨단소재 등 제조업 부문 투자는 48억 7,000만 달러로 600% 이상 급증하며, 양국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

[미래 60년을 위한 당부]

- 한·일 양국은 저출산 · 고령화, 미래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등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절박한 자국 내 과제들도 공유하고 있음
- 이런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 민간 협력이고 재계를 비롯한 양국 전문가분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지금까지 양국이 60년간 쌓아온 협력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새로운 생각과 시각을 가감 없이 받아들이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만 함

[마무리]

- 일본과 한국 양국에는 자신이 태어난 육십갑자가 다시 돌아오는 해를 특별히 축하하는 문화가 있으며, 결혼생활에서도 60주년을 기념하는 회혼식(回婚式)이라는 문화가 있음
- 인생의 60년, 혹은 결혼생활의 60년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절을 되새기며 기뻐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위기와 시련을 함께 극복해 온 60년이라는 세월 자체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음
- 나아가, 60년은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개최되는 이번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한·일 간 정치적 부침(浮沈)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어온 한·일 협력 관계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다가올 60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

○ (일본측 체어맨/아소 유타카 회장)

- 불안정한 세계 정세는 변하지 않은 채, 새로운 리더의 등장으로 인한 혼란과 곤혹, 안정되지 않은 국정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정세 등, 여전히 세계는 혼돈의 상황이며, 이러한 가운데 한일은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였음
- 이럴 때일수록 양국은 서로 으르렁거리거나 쓸데없는 경쟁을 하는 것보다, 서로를 높일 수 있는 경쟁,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는 협력, 상호이해 ·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문화 · 인재교류를 통해 세계의 여러 문제에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윤 대통령님의 영단이 만들어준 양국 우호 모드에 대한 감동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 양국의 경제인들이 그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결과를 낼 차례**라고 생각함
- 일본측에서는 ‘한일경제동반자의 확대~관광산업의 관점~’ 과 ‘미야기현의 상호교류 사례 소개’ 를 발표
- 한일 자매도시 수는 169개이며,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임
- 양국 발표자의 발표 내용 및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깊은 한일 파트너십! 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기탄없는 의견을 나누고,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하고 싶은 일, 현재 하고 있는 일, 이를 계기로 새롭게 임해 나가고 싶은 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
- 오사카 간사이 만국박람회가 다음 달 4월 13일부터 시작되며, 부산의 낙선은 아쉬웠지만, 그때 가지고 있던 한국인의 세계박람회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또한 세계박람회 한국관의 주제인 ‘진심’ 을 오사카 간사이에 부어 주셔서, 함께 분위기를 띄우기를 기대함

○ (한국측 코디네이터/이수철 GH홀딩스 회장 · 한일경제협회 상임이사)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사업 · 제25회 회의 개최로 큰 제안 필요한 시기
- 2023년 한일 FTA 첫 교섭 당시에는 농업 · 자동차분야 등 반대로 교섭 중단,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글로벌 안보 위기 등에 대처하여 **한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FTA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제57회 경제인회의에 상정 기대

○ (일본측 코디네이터/이와다레 요시히코 오비린대학 준교수)

- 한일은 자유무역으로 성장 발전, **자유롭고 열린 통상환경** 지속 필요
- 선진국 간 분단 발생, 통상환경 정비 필요
- FTA 추진시 관세, 국제 룰, 스탠다드가 중요

○ (한국측 주최기관/서석송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60주년의 의미, 일본측 চে어맨의 누구에게도 미루지 말고 현역인 우리가 해야 한다는 숙명을 가슴에 새기며, 긴 기간 공헌에 감사 표명
- 금년은 특별한 해이며,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를 개최,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협력’ 을 위한 현역 경제인들의 각오를 다질 계획임

○ (일본측 주최기관/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

- 작년 한일경제인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이 선언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오부치 총리-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한일 공동선언으로부터 27년이 경과한 가운데, ‘최악’이라고까지 불리던 시기를 극복한 한일 관계를 두 번 다시 되돌리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의 기반이 되는 ‘파트너십 선언 2.0’에 대한 서명 실현에 강한 기대가 담겨있음
- 작년 12월 이후 한국에서의 정치적 혼란도 있어서, 유감스럽게도 현재, 관련된 보도는 거의 볼 수 없고 양국 관계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동시에 이처럼 불투명한 시대야말로 양국의 공통의 이익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한층 더 중요하며, 경제계가 앞장서서 서로의 파트너십을 확인해 나가자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음
- 그래서 이번 회의의 주제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이라고 정했음
- 우리 경제인들이 한일의 미래를 향한 한일 관계 개선의 흐름을 공고히 하고, 트럼프 2.0으로 대표되는 국제질서의 커다란 전환점에서 보다 큰 존재감과 영향력이 있는 ‘신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이 회의를 행동과 발신의 출발점으로 삼자고 하는 염원을 담고 있음

□ 세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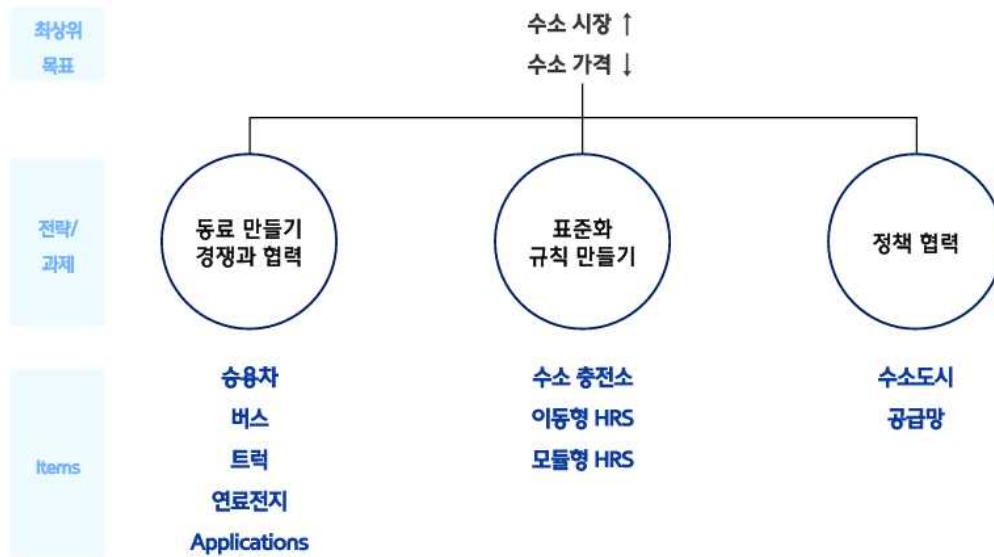
□ 발표자 : 김용태 현대자동차그룹 상무·에너지&수소정책실장

□ 주 제 : 수소 모빌리티와 한일 협력

- 한국과 일본의 수소 산업 현황을 비교하고, 두 나라가 수소와 탄소중립 분야의 글로벌 무대에서 협력하고 성공 쇼케이스를 만들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
 - 수소 모빌리티 시장에서 한일의 중요성, 수소협력의 필요성, 그간의 협력 프레임 워크, 수소 모빌리티 협력 목표와 과제(경쟁과 협력, 표준화, 정책)
- 수소 모빌리티 시장에서 한일의 중요성
 - 한일이 FCEV(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주도, 모빌리티 수소시장 주도
- 수소협력의 필요성
 - 같은 지향점 : “수소경제” 그리고, “수소사회”
 - 같은고민·같은생각,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협력과제”
 - 법(육성, 안전관리), 공급망(수입), 중점부분(발전, 수송, 산업)
- 그간의 협력 프레임 워크
 - 정부(산업부-경산성 수소협력 대화 개설), 의회(한일 수소 의원연맹 결성) 기업, 단체(한일경제인회의,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일 경제포럼)
- 수소 모빌리티 협력의 목표와 과제
 - 궁극적인 목표 : “수소시장 확대” “수소가격 저감”
 - 과제
 - ❶ 한일이 동료가 되기 : 승용차, 버스, 트럭, 연료전지, Applications
 - ❷ 글로벌 규칙 주도하기 : 수소충전소, 이동형 HRS, 모듈형 HRS
 - ❸ 정책협력·조화 : 수소도시(울산 수소도시-도요타 Woven City*), 공급망(해외 저탄소 수입/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 * 자율주행, AI, 신재생 에너지 통합한 첨단기술 실험 미래형 도시(시즈오카)
- Osaka, Kansai Expo 2025, Hydrogen Council & World Hydrogen Expo 2025
 - Osaka, Kansai Expo 2025 : 4~10월 일본수소 기술의 실증
 - Hydrogen Council & World Hydrogen Expo 2025 : 12월 수소 산업을 움직이는 글로벌 CEO의 집결

협력의 목표와 과제: 수소 모빌리티 중심

- 궁극적인 목표는 “수소 시장 확대”와 “수소 가격 저감”임
- 이를 위해, 1) 한일이 동료가 되기, 2) 글로벌 규칙을 주도하기, 3) 정책 협력과 조화를 제안함



- 발표자 : 가지키 하루부미(梶木 晴史) ANA Holdings(주) 경영기획부장
□ 주 제 : 「한일 경제연계의 확대 ~관광산업의 관점~」

- 관광산업의 관점에서 한일 경제연계의 확대 (전세계의 해외 여행자 추이, 한일 간 교류관계 현황, 유동 인구 현황·문화적 배경, 장래 인구 추이, 공통 과제와 대응, 관광산업을 key로 한 경제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제언
 - 한일 간의 유동·관광을 통해 상호보완과 가치를 공동창조함으로써, 경제연계·발전, 장래를 내다보고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
- 교류관계 현황
 - ❶ 해외여행자(韓2,869만명, 日1,302만명), ❷ 여권보유율(韓52%, 日17%)
 - ❸ 인바운드(韓1,637만명, 日3,687만명 / 양국간 유동 日→韓 322만명 19.6% 2위, 韓→日, 882만명 23.9% 1위), ❹ 유동의 배경(韓 J-wave 2.0, 日제5차한류 붐)
 - ❺ 2070년 인구예상(韓3,765만명, 日8,700만명/ 24년대비 韓26.5%↓, 日33.7%↓)
- 한국과 일본의 장래인구
 - (출생률) 韓 '22년 0.78, 日 '23년 1.20 로 낮은 수준
 - (2070년 65세이상 인구비율) 韓46.5%, 日38.7% 로 높은 수준
 - * 2040년까지 총인구는 약간 감소하나, 65세이상 인구비율은 韓 34.3%, 日35%로 초고령화 사회 직면, 2070년에는 양국 모두 급격히 인구 감소

한국 및 일본의 교류 관련 상황



		한국			일본		
1	아웃바운드(해외여행자) 	2,869만명	126.3%	전년대비	1,302만명	135.2%	전년대비
			99.9%	2019년대비		64.8%	2019년대비
2	여권 보유율 	52%	6명 중 3명		17%	6명 중 1명	
3	인바운드(방문자) 	1,637만명	148.4%	전년대비	3,687만명	147.1%	전년대비
			94%	2019년대비		115.6%	2019년대비
	양국간 이동 	일본→한국 322만명	19.6%(2위)		한국→일본 882만명	23.9%(1위)	
			151.8%	전년대비		126.7%	전년대비
			46.2%	2019년대비		157.9%	2019년대비
5	이동의 발생 이유	J-wave 2.0			제5차 한류붐		
6	인구 예측 45년후(2070년) 	3,765만명	고령화를 46.5%		8,700만명	고령화를 38.7%	
			2024년대비 26.5%감소			2024년대비 33.7%감소	

○ 한국과 일본의 공통과제와 대응(교류스테이지⇨새로운 스테이지)

- (공통과제)

- ① 교류인구의 특정 도시 편중(지방교류인구 증가)
- ②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의 진전(고령자의 의료·돌봄)
- ③ 노동 시장의 변화(노동 시장 다양화)
- ④ 환경문제(기후변화, 재생에너지, 폐기물)
- ⑤ 국제사회와의 연계(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 (한일교류 효과)

- ① 문화(인적)교류를 통한 상호이해(관광, 교류 등 다양한 문화가 상호 영향, 상호 이해·우호관계 심화에 기여)
- ② 교육교류를 통한 인재육성(유학·학술, 교육 교류 등 다양한 가치관과 지식을 공유, 미래 리더로서의 인재 육성)
- ③ 경제연계 촉진(시장개방, 투자촉진, 양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 ④ 아시아 지역 안정을 위한 연계 강화(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의 안정과 번영)

○ 한국과 일본의 미래·장래를 향한 key가 되는 관광산업

- (새로운 스테이지)

- ① 저출생에 따른 인력 부족 대응(경제·기술·개발의 상호제휴)
- ② 세계의 글로벌화 대응(국가나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공생)
- ③ 다이버시티 SDGs 대응(다양성을 존중,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

- (지속가능한 성장) Stage1 교류→2 공생→3 공동가치창조·융합→4 조화

- (관광의 효과)

- ①경제 효과, ②지역활성화 효과, ③지역사회 공헌

○ 관광산업을 key로 한 경제연계 활성화에 위한 대응

- 한일관계의 스테이지를 높여가기 위해서는 관광을 Key로서, 문화의 보더리스와 같이 한일 간 교류·관계 인구를 보다 증가시킬 필요. 이를 위해서 한일 간의 인적 유동을 스트레스 없이 원활하게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일을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 지속적으로 사람·상품의 환류를 추진, 상호교류 인구, 관계 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제휴를 함으로써 아시아를 리드하는 지역을 지향하는 것이 가능

- (구체적인 대응책 / 私見)

Phase I 양국 간 사전 입국심사(preclearance)의 조기 실현
~사전 입국심사로 도착 시 스트레스 프리 실현~

Phase II 한일 국적 보유자 상호 도항 간소화
~한일 국적 간 상호 여권없는 왕래 실현~

Phase III 한일판 쎄젠 협정*의 실현
~한일 간 입·출국 심사 없는 왕래 실현~

*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

관광산업을 열쇠로 한 경제연계 활성화 대응



한일관계의 단계 상승을 위해서는 문화의 무경계화와 동시에 한일간 교류 및 관계인구를 관광의 열쇠로 삼아 더욱 증가시켜야 함. 이를 위해 한일간 이동을 스트레스 없이 원활하게(seamless) 할 수 있어야 함.

한일을 하나의 지역으로 바라보고 지속적인 인적·물적 환류를 추진하여 상호 교류인구, 관계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제연계를 통해 아시아를 주도하는 지역을 지향할 수 있음.

구체적 대응방안 (사건)	Phase I 양국간 사전입국심사의 조속한 실현 ~사전입국심사를 통해 도착 시 스트레스 프리 실현~
	↓ 한국 출국 시에 일본 입국심사, 일본 출국 시에 한국 입국심사를 함으로써 한국 및 일본 도착 시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해서 도착 시의 입국심사 스트레스를 줄이고 동시에 심사관 인력부족 대책에도 효과적.
	Phase II 한일 국적 보유자의 상호 이동 간소화 ~한일 국적자는 서로 여권 없이 왕래 실현~
	↓ 한일 간 이동 시 한국 및 일본 국적의 여행자는 여권 없이 상호 이동을 가능케 하여 서로 편하게 국내여행 감각으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함. 이동 간소화를 통해 양국민 환류를 더욱 증가시키고 여러 분야의 연계 증진 촉진.
	Phase III 한일판 쎄젠조약 실현 ~한일간에 입출국심사 없는 왕래 실현~
	한일간 국경 관리를 없애고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케 하여 한일을 면(面)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전세계 인바운드를 수용. 이를 통해 해외에 열린 한일지역을 만들어 경제발전에 공헌. 미래에는 아시아역내 경제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판 쎄젠'으로서 '한일판 쎄젠'을 확대하여 아시아지역 발전에 한일이 주도적으로 공헌한다.

□ 세션1 토론

○ (부산재팬비즈)

- 영남-큐슈 동일 생활 경제권
- 영남-큐슈 공연(음악), 스포츠(야구, 축구) 교류 · 시합 효과 기대
- 부산 벡스코-후쿠오카 식품전시회 공동행사 개최, 지역 활성화 효과

○ (한일경제협회)

- ANA에 한일 여권보유율(韓52%, 日17%)과 다른국가와의 비교통계 질문
⇒ (ANA) 일본이 극단적으로 낮으며, 유럽 · 미국은 높은 편임. 일본이 낮은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고령자의 여권 미갱신

○ (韓 코디네이터)

- 유럽연합 회원국간 쟁쟁 협정(무비자 통행)의 도입 검토 중, 사전 입국 심사 조기 실현시 방문객 증가 기대
⇒ (ANA) 공항도착 후 곧바로 목적지로 향할 수 있도록, 사전입국심사의 조속한 실현을 기대

○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

- 현대차에 일본의 어떤 회사와 협업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
⇒ (현대차) 현재는 모빌리티 중심 협력 추진, 시장확대를 위해 경쟁 하면서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음(이와타니, 닛키, 가와사키중공업 등)

○ (한국미쓰이물산)

- 현대차에 양국 정부의 관여 정도, 보조 지원의 특징(수소충전소, 연료 공급, 기술 등) 질문
⇒ (현대차) 모빌리티 지원(자동차 구매, 수소충전소 사업자 지원, 상용차 연료가격 지원)

○ (도레이첨단소재)

- 한국정부는 수소 · 바이오 등 7개분야 국가기술을 지원
- 제품기술은 지원하나 2차전지 등 소재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음
- 소재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현대차의 목적 달성에 기여, 정부에 공동 건의 희망

□ 세션2 주제발표

□ 발표자 : 이형오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주 제 :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한일 경제협력의 길

- 한일경제환경의 변화과정(무역·투자), 각 단계별 협력내용(국교정상화 초기 단계, 한국경제 고도성장 단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단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단계), 한일경제협력의 필요성, 향후 한일 경제협력 방향에 대해 발표
- 한일경제환경의 변화과정(무역·투자)
 - 수출비중 : 1990년대까지 20%전후→이후 중국부상, 日존재감 약화(4.3%)
 - 수입비중 : 1980년대까지 30%전후→이후 하락추세, 日존재감 약화(7.6%)
 - 투자비중 : '65년 2.3%→ '73년 92.5%→ '10년 15.9%→ '23년 3.9%→ '24년 17.7%
- 각 단계별 협력내용
 - ① 국교정상화 초기 단계(65~69) : 한일 국교정상화, 경제협력 제도화
 - ② 한국경제 고도성장 단계(70~80) : 수직적 한일협력 관계, 대한투자 증가
 - ③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단계(90~00) : 무역불균형 해소, FTA논의, 한중일 분업
 - ④ 글로벌 공급망 재편 단계(10~25) : 한일관계악화·협력악화, 한일관계 회복, 중국 부상
- 한일경제협력의 필요성
 - 기술 및 경영측면의 일방향적 협력→상호보완적, 공통과제해결 차원 협력
 - ①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공동대응
 - ② 저출생, 고령화, 인구감소 등 공동대응
 - ③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관점에서 좋은 협력 파트너(상호 보완)
 - ④ 국제 정치적 요소
- 향후 한일 경제협력 방향
 - ① 기존 주요 산업(자동차, 반도체 등)에서의 경제협력
 - ② LNG, 핵심광물 등 천연자원 확보
 - ③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수소, 암모니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 ④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 분야 협력
 - ⑤ 고령화 대응을 위한 실버 산업에서의 협력
 - ⑥ 글로벌 시장 및 제3국 시장에서의 한일 협력
 - ⑦ 인력 및 정보 교류를 통한 한일 중소기업 간 협력
 - ⑧ 중장기적 경제통합을 위한 CPTPP 가입 및 한일FTA 구상

□ 발표자 : 이치카와 슈(市川 修) 미야기현서울사무소 소장

□ 주 제 : 「미야기현의 상호교류 소개」

- 미야기현의 개요, 미야기현의 한국과의 교류 잠재력(제주올레-미야기현 협정 체결, 한국기업의 미야기현 중소기업 시찰 수용, 우송정보대학(대전)-미야기현서울사무소 산학협력 협정)에 대해 발표
- 미야기현의 개요
 - 인구 : 230만명, 주요도시 : 센다이시(106만명), 주요산업 : 식품, 제조업
 - 방일 숙박자수 : 1위 오사카(350만명), 2위 도쿄(337만명), 35위 미야기(1.6만명)
- 미야기현의 한국과의 교류 잠재력(Potential)
 - 1900년 서울/김포-센다이 국제선 취항, 1992년 미야기현서울사무소 설립
 - 2001년 인천-센다이 국제선 취항, 2002년 광주-센다이 자매도시 결연
 - 2017년 (사)제주올레-미야기현 협정 체결, **2019년 한국기업의 미야기현 중소기업 시찰 수용 개시**, 2021년 우송정보대학-현서울사무소 협력협정
- (사)제주올레-미야기현 협정 체결
 - 한국발 문화(올레) 수입,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다시 조명('25년 6코스)
- 한국기업의 미야기현 중소기업 시찰 수용 개시
 - 2019년부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주최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시찰 연수 사업 수용(일본 모노즈쿠리IoT 연수, 제조혁신 인스트럭처 일본과정 연수, 일본 모노즈쿠리 DX 연수)
 - 향후, 일본 미야기현 기업의 한국기업 시찰로 양방향 교류 추진
- 우송정보대학(대전)-미야기현서울사무소 산학협력협정 체결
 - 우송정보대학은 **한국내에서 유일하게 일식외식조리학부가** 있는 대학,
 - 미야기현 서울사무소는 2021년 산학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사업 실시
 - 일본술/사케(일본음식문화) × 한국음식문화 프로그램 실시

세션2 토론

○ (日 체어맨)

- 본회의가 공부회에서 액션 연계 단계로 발전 기대
- 한일 FTA를 왜 못하는지? 왜 안되는지? 입국의 어려움 등 해결방안을 민간레벨에서 공동 제안하여 정부가 움직이게 해야 함

○ (한국미쓰비시상사/ SJC)

- 한일경제환경의 변화 4단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단계’와 관련하여 중국은 피할 수 없는 파트너이자 경쟁자 관계에 대해 질문
 - ⇒ (숙명여대) 미중 갈등으로 중국 교역 감소 부담, 한일 기업의 파이 확보 필요, 중국시장 포기는 어렵고 점진적 비중 축소, 선진 국가로 시장 대체 필요

○ (주한일본대사관)

- 한일 경제협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 없으나, 3가지 연관 요소 (①국민감정 ②정치인지 ③관료주의/행정) 감안하여 해야만 한다는 정리와 푸시가 필요
- 부정적 반응은 없는지? 경제적 통합이 베스트라고 단언 가능한지? 순조롭게 가능한지? 등
 - ⇒ (숙명여대) 정치적 인식 차이가 큼, 현단계에서는 FTA 논의 어려움, 경제적 효과 분석 조사 필요, 한일 모두 인구 감소로 내수시장 축소 경향, 규모의 경제 효과 기대, 언론 동참한다면 정치부분도 해결 가능

○ (日 코디네이터)

- 통상정책 참여 경험, 명확한 숫자 메리트 발표 필요
-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활용 협력 필요, 성장 지탱
- 행동, 액션 위해 경제효과, 데이터 마련 필요

전체 토론

○ (경북대학교)

- 한일 수교 60주년, 사업 평가 및 성찰 제안(회의, 재단사업 등)
- 사업 전개 현황 · 개선사항 공동조사, 반면교사
- 한일 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으로 자기매김
- 참석자 저변 확대, 주제별 정보발신의 장으로 개선

○ (일한경제협회)

- 미야기현 발표자료 4p 명계, 일본 술 인기 높으나, 한국내 수입금지
- 소비국가 인식이 중요, 냉철하게 과학적 근거로 논의 필요
- 발표를 계기로 서로의 거리를 좁혀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이해

○ (주한일본대사관)

- 일본 정부 식품 안전 관련 등 중시하고 있음

○ (韓 코디네이터)

- 경제계에서 FTA 제언된다면 각국 입장에 대해 질문
- 한일 수교 60주년, 한일 관계 가까워지기 위해 제언
 - ⇒ (산업부) 수소/암모니아 한일 협력기반 공고히 하고 있고, 한중일 FTA 논의중이며 한일 FTA도 논의해 나가겠음
 - ⇒ (주한일본대사관) 정부 간 특별히 이슈가 안되고 있음

○ (日 체어맨)

- 5월 경제인회의 개최전 4월말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점 조사해서 해결책을 외부에 발신 필요

○ (韓 체어맨)

- 현 상태에서는 한일 FTA 단어 무게감, 복잡함
- 한일경제협력이 취지라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 (日 체어맨)

- 출입국 간소화, 에너지원 조달 등 세분화가 필요, 한일 간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해외 메시지 발신이 필요
- 개별적 협력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표현해 나가면 좋을 것임

○ (韓 체어맨)

- 한일 간 긍정적인 면(공급망, 수소협력, 제3국 협력, 교류) 논의해서 FTA로 이행

○ (한일경제협회)

- 경제단체·관세 이해관계자 의견 모아 손에 잡히는 성과 발표 동의하나, 4월 말까지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데 공통의 애로사항 정리가 가능할지 애로사항으로 여겨짐

○ (韓 코디네이터)

- 굵직한 방향 설정하여 경제인회의에 요망사항을 제언, 정부 제언 역할

○ (부산재팬비즈)

- 수교 60주년 기념, 하반기에는 영남-큐슈경제인회의 개최 희망

○ (JETRO서울사무소)

- 경제산업성 주도 한일 간 협력 소개
- 수소분야 고위급 대화, 조달부문 협력, 중소기업벤처진흥 스타트업 대화, 제주도-오키나와 스타트업 MOU 등 한일관계 포지티브 활동

○ (日 체어맨)

- 지역연계, 출입국 원활화, JETRO 사례 등 차세대 위해 미래를 내다보는 접근 가능한 아이템에 대한 액션 플랜을 정리

○ (일한경제협회)

- 경제인 의견정리, 공동성명 발신

○ (韓 체어맨)

- 5월 경제인회의에 신산업무역회의 논의결과 정리하여 제언·보고

○ (일한학생미래회의)

- 일본측 일한학생미래회의 회장, 고려대 1년 교환학생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대학생의 생각, 왜 한국과 교류하고 배울 점이 무엇인지? 경제성과 체감 등 한일 간 모습 정리 계획

총괄 · 마무리

○ (日코디네이터)

- 가시적인 성과 어떻게 낼 것인가? FTA 표현이 아니더라도 서플라이 체인 강인화 등 연계 및 해야 할 일 등 경제계 의견을 정치·행정에 제언
- 한일 풀뿌리 교류, 산업계, 기업, 사람:사람, 지역:지역 인프라 활동을 착실히 진행

○ (韓코디네이터)

- 수교 60주년, 25회 회의, 경제계 차원에서 한일 심볼(상징) 제언,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실현 가능
- 한일 신산업무역회의 계기, 속 깊은 기탄없는 이야기 기회 기대

○ (韓체어맨)

- 일 년 전 동경에서 개최된 제24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에서는, 아주대학교 박성빈 교수께서 한-일 수소협력과 관련한 발제를 해주신 바 있음
- 이후, 작년 6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주관하는 ‘제1회 한-일 수소협력 대화’가 서울에서 개최됨
- 며칠 전인 3월 10일에는 동경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도요타자동차그룹, 양국 정치권 및 관계부처 관계자가 만나, 양국의 수소협업을 본격화하는 민·관·정 수소생태계 구축 행사가 있었음
- 지난 한일 신산업무역회의의 논의가 한일-일한 양국의 협력이 구체화 되는 수소협력 분야 논의에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낌
- 앞서 많은 참석자분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금년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로서 향후, 한국과 일본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는 비단 수소에 그치지 않을 것임
- 한·일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할 과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고, 미래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대외 통상환경 대응 등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함께 대응할 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과제들을 공유하고 있음
- 오늘의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비롯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논의와 행사들이 향후 협력적, 공생적 한·일 관계의 60년을 시작하는 뜻 깊은 출발점이 되리라 기대함

○ (日체어맨)

- 신산업무역회의가 차세대 위해 역할, 액션플랜 작성 결의는 성과
- 한일 간 접근해서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

○ (한일경제협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참석자, 통역, 호텔 서비스 등에 감사 표명

○ (일한경제협회)

- 세션 1에서는 탄소중립을 향한 수소사회의 실현과 한일의 왕래가 사상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관광산업을 Key로 한 경제연계에 대해 발표
세션 2에서는 한일 경제협력의 역사와 대처과제, 지역 간 교류에 있어서 미야기현의 사례를 발표
- 비즈니스에서 한일은 많은 부분에서 보완관계에 있으며, 또한 대중국 등과의 경쟁력 확보에서 한일은 서프라이 체인 강화, 첨단기술 분야 협력, 경제안전 보장 촉진에 큰 효과를 발휘
- 한국과 일본의 기업은 이에 메리트가 있는 한 연계를 선택할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한일 협력은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음
- 한편, 상호 교류에는 서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엿보임
- 일본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K-POP이나 드라마, 패션 등을 통해 한국을 알고, 흥미를 가지고, 일종의 동경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음
한국 분들도 처음에는 애니메이션이나 J-POP을 시작으로 하여, 일본 각지를 연결하는 항공노선에 의해 도쿄, 오사카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즐거운 볼거리, 음식 등을 통해서 한층 더 좋아하게 되었음
- 양국의 미래는 이해와 함께 복충적이고 다원적인 폭넓은 교류가 중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신산업 무역회의의 논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함
- 오늘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의견은 5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일경제인회의로 연결하여 회의와 공동성명을 통해 각 방면에 제언해 나가겠음

7. 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평가

- 올해 기념비적인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비즈니스의 최전선에 있는 관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굳건한 파트너십 구축 및 경제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깊은 회의가 되었음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경제계 차원에서 양국의 성장·발전을 위해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 협력 등 한일의 미래를 향한 메시지를 발신
- 작년 한일 신산업무역회의에서의 논의가 한일-일한 양국의 협력이 구체화 되는 수소협력 분야 논의에 밑거름이 되었음
- 제24회 한일 신산업무역회의('24. 3 도쿄)에서 한일 수소협력과 관련한 발제 이후, 양국 정부 주관 '제1회 한-일 수소협력 대화' 개최('24. 6 서울), 양국의 수소협업을 본격화하는 민·관·정 수소생태계 구축 행사('25. 3 도쿄) 개최

후속조치

-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25.5.27 서울)에서의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보고·제언문 작성
-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 주제발표자 확정 및 발표내용에 반영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한일 경제인관 **한일 경제협력의 방향성**을 담은 공동성명 채택에 반영

연합뉴스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서울=연합뉴스)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03.13. photo@yna.co.kr

대화하는 이인호 부회장과 아소시멘트 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오른쪽)과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3.13. photo@yna.co.kr

개회사 하는 이인호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3.13. photo@yna.co.kr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이수철 GH홀딩스 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이와다레 요시히코 오비린대학 준교수,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2025.03.13. photo@yna.co.kr

서울경제

무협, 韓·日 국교 정상화 60주년 회의 "AI 등 협력 강화"

제 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AI 등 신산업 협력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논의 내용 5월 한일경제인회의에 안건 상정



한국무역협회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9년 시작된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는 양국 경제계 주도로 경제 현안과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산업 분야 공동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 해 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양국 정부·기업·기관·학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올 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양국은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며 "저출산·고령화 대응, 미래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등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은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맞닥뜨린 지금은 양국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해 여러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수년간 형성된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발판 삼아 양국 경제인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신재생에너지 협력, 관광산업 활성화, 인적 교류 확대 등에서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용태 현대차(005380) 상무는 수소시장 확대와 수소가격 저감을 위한 양국 간 정책 협력 및 표준화 준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지키 하루부미 ANA홀딩스 경영기획부장은 관광 산업을 포함한 교류 확대를 위한 사전 입국심사 간소화 등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물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개발, 해외 인재 육성, 필수 인력 자격 공동화 등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형오 한일경상학회 회장은 반도체·자동차·부품소재 등 기존 산업뿐 아니라 AI·수소에너지·실버 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치카와 슈미야기현 서울사무소장은 한국 중소기업 및 대학교 등과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7회 한일 경제인 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지속하며 양국 경제계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3.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아주경제

무협,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미래 분야 경제협력 논의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주제



한국무역협회(KITA)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9년 시작된 이번 회의는 양국 경제계 주도로 최근 경제현안과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산업 분야에서의 공동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60년간 양국은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며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미래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등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도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맞닥뜨린 지금은 양국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여러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수년간 형성된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발판 삼아 양국의 경제인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산업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태 현대자동차 상무는 '수소 모빌리티와 한·일 협력' 발표에서 수소시장 확대와 수소가격 저감을 위한 양국간 정책 협력 및 표준화 준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치기 하루부미 ANA홀딩스 경영기획부장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전 입국심사 간소화 등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로봇 기술 개발, 해외 인재 육성, 필수 인력 자격 공통화 등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형오 한일경상학회 회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한·일 경제협력의 길' 발표에서 반도체·자동차·부품소재 등 기존 산업 뿐만 아니라 AI·수소에너지·실버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치카와 슈 미야기현서울사무소 소장은 '미야기현의 상호 교류 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대학교 등과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2025.03.13. 이성진 기자 leesj@ajunews.com

무협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韓·日 국교 정상화 60주년 경제·산업 협력 강화 방안 모색”



한국무역협회(회장 윤진식)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9년 시작된 동 회의는 양국 경제계 주도로 최근 경제현안과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산업 분야에서의 공동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 정부·기업·기관·학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60년간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며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미래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등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주) 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맞닥뜨린 지금은 양국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여러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수년간 형성된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발판 삼아 양국의 경제인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산업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용태 현대자동차 상무는 ‘수소 모빌리티와 한·일 협력’ 발표에서 수소시장 확대와 수소가격 저감을 위한 양국간 정책 협력 및 표준화 준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지키 하루부미 ANA홀딩스(주) 경영기획부장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전 입국심사 간소화 등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AI·로봇 기술 개발, 해외 인재 육성, 필수 인력 자격 공통화 등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형오 한일경상학회 회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한일 경제협력의 길’ 발표에서 반도체·자동차·부품소재 등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실버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치카와 슈 미야기현서울사무소 소장은 ‘미야기현의 상호 교류 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대학교 등과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지속하며 양국 경제계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다.

2025.03.13. 양대근 기자 bigroot@heraldcorp.com

"한일, 저출산·에너지 과제 공유해야"...국교 정상화 60주년 행사 개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한국무역협회(KITA)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1999년 시작된 이 회의는 양국 경제계 주도로 최근 경제현안과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산업 분야에서의 공동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렸다. 양국 정부·기업·기관·학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60년간 양국은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며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미래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등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 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맞닥뜨린 지금은 양국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여러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수년간 형성된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발판 삼아 양국의 경제인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산업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현대자동차 김용태 상무는 '수소 모빌리티와 한·일 협력' 발표에서 수소시장 확대와 수소가격 저감을 위한 양국간 정책 협력 및 표준화 준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지키 하루부미(梶木 晴史) ANA홀딩스 경영기획부장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전 입국심사 간소화 등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AI·로봇 기술 개발, 해외 인재 육성 등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한일경상학회 이형호 회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한·일 경제협력의 길" 발표를 통해 반도체·자동차·부품소재 등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실버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치카와 슈(市川 修) 미야기현서울사무소 소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대학교 등과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2025.03.13. 정석호 기자 seokho7@naver.com

韓·日 국교 정상화 60주년...신재생에너지·AI 신산업 협력 모색



한일간 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협력,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광산업 활성화 등이 논의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1999년 시작된 이 회의는 양국 경제계 주도로 최근 경제현안과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산업 분야에서의 공동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 정부·기업·기관·학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60년간 양국은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미래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등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주) 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맞닥뜨린 지금은 양국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여러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수년간 형성된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발판 삼아 양국의 경제인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산업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용태 현대자동차(주) 상무는 '수소 모빌리티와 한일 협력' 발표에서 수소시장 확대와 수소가격 저감을 위한 양국간 정책 협력 및 표준화 준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지키 하루부미 ANA홀딩스(주) 경영기획부장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전 입국심사 간소화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AI·로봇 기술 개발, 해외 인재 육성, 필수 인력 자격 공통화 등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형오 한일경상학회 회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한일 경제협력의 길’ 발표에서 반도체·자동차·부품소재 등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AI·수소에너지·실버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치카와 슈 미야기현서울사무소 소장은 ‘미야기현의 상호 교류 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대학교 등과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지속하며, 양국 경제계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다.

2025.03.13. 채윤정 기자 echo717@naver.com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기념 촬영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왼쪽부터), 이수철 GH홀딩스 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 이와다레 요시히코 오비린대학 준교수,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가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13. 이연주 기자 photo@news1.kr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회사



이인호 한국무역협회(KITA) 부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3.13. 이연주 기자 photo@news1.kr

무역협회,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경제 협력부터 사회문제까지 폭넓은 논의
5월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 안건으로 상정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무역협회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양국 정부와 기업·기관·학계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60년간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며 “양국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 미래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등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공유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산업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용태 현대자동차 상무는 ‘수소 모빌리티와 한·일 협력’ 발표에서 수소시장 확대와 수소가격 저감을 위한 양국간 정책 협력 및 표준화 준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가지키 하루부미 ANA홀딩스 경영기획부장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전 입국심사 간소화 등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AI(인공지능) 로봇 기술 개발, 해외 인재 육성, 필수 인력 자격 공통화 등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형오 한일경상학회 회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한일 경제협력의 길’ 발표에서 반도체·자동차·부품소재 등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AI·수소에너지·실버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치카와 슈 미야기현서울사무소 소장은 '미야기현의 상호 교류 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대학교 등과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지속하며 양국 경제계의 접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2025.03.13. 황재희 기자 dailyhee@newsquest.co.kr

'韓-日 국교 정상화 60주년'...무협, 경제·산업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한국무역협회(KITA)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9년 시작된 동 회의는 양국 경제계 주도로 최근 경제현안과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산업 분야에서의 공동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렸다. 양국 정부·기업·기관·학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60년간 양국은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며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미래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등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맞닥뜨린 지금은 양국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여러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수년간 형성된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발판 삼아 양국의 경제인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산업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지속하며 양국 경제계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3. 김아영 기자 aykim@newspim.com

THE FACT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무협, 경제·산업 협력 모색

무협,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한국무역협회(KITA·무협)는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양국 정부·기업·기관·학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미래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등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은 "양국 경제인들이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수소 모빌리티 협력 △신재생에너지 분야 정책 협력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국심사 간소화 △AI·로봇 기술 개발 △해외 인재 육성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무협은 후속 논의를 지속해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03.13. 황지향 기자 hyang@tf.co.kr

디지털타임스

“韓 · 日 국교 정상화 60주년…수소 · 노동 · AI 등 협업 모색해야”



한국무역협회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1999년 시작된 이 회의는 양국 경제계 주도로 최근 경제현안과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산업 분야에서의 공동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 정부·기업·기관·학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60년간 양국은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며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미래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등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은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맞닥뜨린 지금은 양국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인적교류를 확대해 여러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수년간 형성된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발판 삼아 양국의 경제인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산업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태 현대차 상무는 '수소 모빌리티와 한·일 협력' 발표에서 수소시장 확대와 수소가격 저감을 위한 양국간 정책 협력·표준화 추진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지키 하루부미 ANA홀딩스 경영기획부장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전 입국심사 간소화 등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로봇 기술 개발, 해외 인재 육성, 필수 인력 자격 공통화 등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형오 한일경상학회 회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한일 경제협력의 길' 발표에서 반도체·자동차·부품소재 등 기존 산업뿐 아니라 AI·수소에너지·실버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치카와 슈 미야기현서울사무소 소장은 '미야기현의 상호 교류 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대학교 등과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무협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지속하며 양국 경제계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3.13.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세계비즈

韓 · 日 국교 정상화 60주년, 경제 · 산업 협력 강화 방안 모색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윤진식)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1999년 시작된 동 회의는 양국 경제계 주도로 최근 경제현안과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산업 분야에서의 공동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 정부·기업·기관·학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60년간 양국은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며,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미래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등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맞닥뜨린 지금은 양국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여러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라며 “지난 수년간 형성된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발판 삼아 양국의 경제인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후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산업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용태 현대자동차(주) 상무는 ‘수소 모빌리티와 한·일 협력’ 발표에서 수소시장 확대와 수소가격 저감을 위한 양국간 정책 협력 및 표준화 준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지키 하루부미(梶木 晴史) ANA홀딩스(주) 경영기획부장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전 입국심사 간소화 등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AI·로봇 기술 개발, 해외 인재 육성, 필수 인력 자격 공통화 등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형오 한일경상학회 회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한·일 경제협력의 길’ 발표에서 반도체·자동차·부품소재 등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실버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치카와 슈(市川 修) 미야기현서울사무소 소장은 ‘미야기현의 상호 교류 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대학교 등과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지속하며 양국 경제계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다.

2025.03.13.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무협,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공동 직면 과제,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한국무역협회(KITA)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9년 시작된 동 회의는 양국 경제계 주도로 최근 경제현안과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산업 분야에서의 공동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 정부·기업·기관·학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60년간 양국은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며 “양국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주) 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맞닥뜨린 지금은 양국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여러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수년간 형성된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발판 삼아 양국의 경제인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산업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용태 현대자동차(주) 상무는 '수소 모빌리티와 한·일 협력' 발표에서 수소시장 확대와 수소가격 저감을 위한 양국간 정책 협력 및 표준화 준칙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가치기 하루부미 ANA홀딩스(주) 경영기획부장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전 입국심사 간소화 등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AI·로봇 기술 개발, 해외 인재 육성, 필수 인력 자격 공동화 등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형오 한일경상학회 회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한·일 경제협력의 길’ 발표에서 반도체·자동차·부품소재 등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실버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치카와 슈 미야기현서울사무소 소장은 ‘미야기현의 상호 교류 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대학교 등과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지속하며 양국 경제계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다.

2025.03.13. 이정범 기자 jblee98@shinailbo.co.kr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신규투자 보수적으로 접근"

전기차 캐즘 여파
"공장 가동률 60%...하반기 상승 기대"
"배터리 분리막 시장, 2~3년 후 좋아질 것"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이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부진) 여파로 설비 투자와 같은 신규 투자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일본 대기업 도레이그룹의 한국 자회사로,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을 비롯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 회장은 전날인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종료 후 아시아경제와 만나 "설비 증설 같은 의사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신규 투자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황 부진 여파로 현재 공장 가동률이 50~60%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분리막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과 함께 배터리 4대 핵심 소재로 여겨진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이 닿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리튬이온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서 배터리 분리막을 만드는 곳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와 도레이첨단소재가 대표적이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에 사용된 분리막 총적재량은 약 132억3000㎡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경북 구미 산업단지에 배터리 분리막, 아라미드, 탄소섬유 등을 생산하는 공장 5개를 두고 있다. 경기 안성시와 전북 군산시, 충남 공주시 등에도 공장을 가동 중이다. 모회사인 일본 도레이는 탄소섬유로 글로벌 시장 1위 업체다. 탄소섬유는 항공기와 자동차 소재로 사용된다. 항공 분야 시장분석기관 포케스트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전 세계 민항기 시장 규모는 2023년 2294억 달러에서 2032년 3848억 달러(약 509조원)로 연평균 5.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전기차 수요가 2~3년 뒤 개선돼 배터리 분리막 수요도 다시 증가할 것으로 봤다. 그는 "지금은 전기차 캐즘이라 사업 속도가 늦춰졌지만 2~3년 지나면 다시 좋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회장은 국내 화학업계 최장수 최고경영자(CEO)로 손꼽힌다. 1973년 도레이첨단소재의 모태인 제일합섬에 입사한 이후 1999년 도레이첨단소재의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2013년 회장 자리에 올라 현재까지 CE)를 맡고 있다.

2025.03.13.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무협,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미래 산업 협력 논의

한일경제협회·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주제로 개최
AI·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협력 강조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1999년부터 이어진 이 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 정부와 기업, 기관, 학계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미래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등 단독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며 "협력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도 "양국 경제인들이 우호적 분위기를 발판 삼아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협력, 관광산업 활성화,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첫 세션에서는 현대차 김용태 상무가 '수소 모빌리티와 한·일 협력'을 발표하며, 수소시장 확대 및 가격 저감을 위한 정책 협력과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ANA홀딩스 가지키 하루부미 경영기획부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AI·로봇 기술 개발 및 해외 인재 육성, 필수 인력 자격 공통화 등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일경상학회 이형오 회장이 '한·일 경제협력의 길'을 주제로 발표하며 반도체,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뿐만 아니라 AI·수소에너지·실버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야기현서울사무소 이치카와 슈 소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대학과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한·일 경제 교류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무협은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지속하고, 양국 경제계의 접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2025.03.13. 뉴시스언론보도 master@widedaily.com

韓 · 日 국교 정상화 60주년, 경제 · 산업 협력 강화 방안 모색

무협,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신재생에너지·AI 등 신산업 협력,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논의



한국무역협회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9년 시작된 이 회의는 양국 경제계가 주도해 최근 경제 현안과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산업 분야에서 공동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양국 정부·기업·기관·학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60년간 양국은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며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미래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등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麻生 泰) 아소시멘트(주) 회장도 개회사를 통해 "불안정한 세계 정세 속에서 양국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해 여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최근 형성된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바탕으로 경제인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및 노동시장 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 산업 활성화,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경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용태 현대자동차(주) 상무는 '수소 모빌리티와 한·일 협력' 발표를 통해 수소시장 확대와 수소가격 저감을 위한 양국 간 정책 협력 및 표준화 준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지키 하루부미(梶木 晴史) ANA홀딩스(주) 경영기획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전 입국심사 간소화 등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AI·로봇 기술 개발, 해외 인재 육성, 필수 인력 자격 공통화 등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형오 한일경상학회 회장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한·일 경제협력의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회장은 반도체·자동차·부품소재 등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실버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치카와 슈(市川 修) 미야기현서울사무소 소장은 '미야기현의 상호 교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중소기업 및 대학과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지속하며 양국 경제계의 접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03.13.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韓 · 日 국교 정상화 60주년...경제 · 산업 협력 강화 방안 모색

무협,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03.13. 강문정 기자 kangmj@etoday.co.kr

무협,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양국 미래산업 협력 논의



한국무역협회(KITA)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

1999년 시작된 동 회의는 양국 경제계 주도로 최근 경제현안과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산업 분야에서의 공동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 정부·기업·기관·학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60년간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성장해 왔다”며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미래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등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도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맞닥뜨린 지금은 양국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여러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라며 “지난 수년간 형성된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발판 삼아 양국의 경제인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화답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산업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용태 현대자동차 상무는 '수소 모빌리티와 한·일 협력' 발표에서 수소시장 확대와 수소가격 저감을 위한 양국간 정책 협력 및 표준화 준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지키 하루부미 ANA홀딩스 경영기획부장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전 입국심사 간소화 등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AI·로봇 기술 개발, 해외 인재 육성, 필수 인력 자격 공통화 등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형오 한일경상학회 회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한일 경제협력의 길' 발표에서 반도체·자동차·부품소재 등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실버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치카와 슈(市川 修) 미야기현서울사무소 소장은

'미야기현의 상호 교류 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대학교 등과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지속하며 양국 경제계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다.

2025.03.13.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무협,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경제·산업 협력 방안 모색

신산업 협력,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광산업 활성화 등 논의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는 1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999년 시작된 동 회의는 양국 경제계 주도로 최근 경제현안과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산업 분야에서의 공동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렸으며, 양국 정부·기업·기관·학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 의장인 이인호 무협 부회장은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60년간 양국은 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미래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등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의장인 아소 유타카 아소시멘트 회장은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맞닥뜨린 지금은 양국이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및 인적교류를 확대해 여러 위기를 대처해야 한다"면서 "지난 수년간 형성된 양국 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발판 삼아 양국의 경제인들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산업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용태 현대자동차 상무는 '수소 모빌리티와 한·일 협력' 발표에서 수소시장 확대와 수소가격 저감을 위한 양국간 정책 협력 및 표준화 준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지키 하루부미 ANA홀딩스 경영기획부장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전 입국심사

간소화 등의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로봇 기술 개발, 해외 인재 육성, 필수 인력 자격 공동화 등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형오 한일경상학회 회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한일 경제협력의 길' 발표에서 반도체·자동차·부품소재 등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AI·수소에너지·실버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치카와 슈 미야기현서울사무소 소장은 '미야기현의 상호 교류 사례 소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대학교 등과의 다양한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무협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지속하며 양국 경제계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13. 이창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韓·日 국교 정상화 60주년...무협 "협력 늘려야"

13일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1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 측 의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며 "양국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미래 에너지 확보, 탈탄소 사회 구축 등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관광산업 활성화, 인적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번째 세션에서 김용태 현대자동차 상무는 '수소 모빌리티와 한·일 협력' 발표에서 수소시장 확대와 수소가격 저감을 위한 양국간 정책 협력 및 표준화 준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지키 하루부미 ANA홀딩스 경영기획부장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 확대, 이를 위한 사전 입국심사 간소화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로봇 기술 개발 등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 세션에서 이형오 한일경상학회 회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한·일 경제협력의 길' 발표에서 반도체·자동차·부품소재 등 기존 산업뿐 아니라 AI·수소에너지·실버산업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협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7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번 논의가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지속하며 양국 경제계의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03.13. 권준호 기자 kjh0109@fnnews.com

첨부2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일정표

■ 주제 :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더 넓고 더 깊은 한일 파트너십!

일 자	시 간	내 용
3/12 (수)	18:30~20:00 (90)	환영리셉션 (장소 : 롯데호텔 서울 36F 벨뷰스위트)
3/13 (목)	09:00~09:30 (30)	접 수 (장소 : 롯데호텔 서울 2F 에메랄드룸)
	09:30~09:33 (03)	기념촬영
	09:33~09:35 (02)	개 회
	09:35~09:45 (10)	개회인사
	(05)	▶ 이 인 호 한국측 চে어맨 / (사)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05)	▶ 아소 유타카(麻生 泰) 일본측 চে어맨 / 아소시멘트(주) 회장
	09:45~10:05 (20)	코디네이터·양국 주최기관 인사
	(05)	▶ 이 수 철 한국측 코디네이터 / (주)GH Holdings 회장
	(05)	▶ 이와다레 요시히코(岩垂 好彦) 일본측 코디네이터
	(05)	/ 오비린(桜美林)대학 준교수
	(05)	▶ 서 석 송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05)	▶ 우치다 토시아키(内田 敏明) (일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3/13 (목)	10:10~11:30 (80)	세션(Ⅰ) :
	(20)	▶ 김용태 현대자동차그룹 상무·에너지&수소정책실장 「수소 모빌리티와 한일협력」
	(20)	▶ 가지키 하루부미(梶木 晴史) ANA Holdings(주) 경영기획부장 「한일 경제연계 확대 ~관광산업 관점에서~」
	(40)	▶ 1세션 질의응답
	11:30~12:40 (70)	오찬 (장소 : 롯데호텔 서울 2F 에메랄드룸 / 도시락)
	12:40~14:00 (80)	세션(Ⅱ) :
	(20)	▶ 이형오 한일경상학회 회장·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한일 경제협력의 길」
	(20)	▶ 이치카와 슈(市川 修) 미야기현서울사무소 소장 「미야기현의 상호교류 사례 소개」
	(40)	▶ 2세션 질의응답
	14:00~14:20 (20)	커피브레이크
	14:20~15:10 (50)	전체토론
3/13 (목)	15:10~15:30 (20)	양국 코디네이터 총괄
		양국 চে어맨 총괄
		양국 사무국 인사 / 폐회

첨부3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한일 양국 참가위원 명단

□ 한국측

구분/소속 가나다 順

No.	소속/부서	직 함	성 명			비 고
			한글	한자	영문	
1	(사)한국무역협회	상 부 회 장	이 인 호	李 仁 浩	LEE Inho	체 어 맨
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 국 장	김 중 철	金 鍾 喆	KIM Jong-Chul	리 셉 션 내빈인사
3	(주)GH홀딩스	회 장	이 수 철	李 洙 喆	LEE Soo-Chul	코디네이터
4	(사)한일경제협회	상 부 회 장	서 석 송	徐 錫 崇	SEO Seok-Soong	주최기관 대 표
5	현대자동차그룹 에너지&수소정책실	상 실 무 장	김 용 태	金 容 泰	KIMM Yong-Tae	1세션 발표
6	숙명여자대학교 한일경상학회	교 회 수 장	이 형 오	李 亨 五	LEE Hyung-Oh	2세션 발표
7	도레이첨단소재(주)	회 장	이 영 관	李 泳 官	LEE Young-Kwan	
8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주)	부 사 장	김 정 한	金 貞 漢	KIM Jung-Han	
9	동원산업	부 회 장	이 명 우	李 明 祐	LEE Myoung-Woo	
10	법무법인세종	변 호 사	김 영 근	金 永 根	KIM Young-Geun	
11	김&장법률사무소	회 계 사	김 요 대	金 堯 大	KIM Yo-Dae	
12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서 정 해	徐 正 解	SEO Joung-Hae	
1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프로젝트 매 니 저	여 경 주	余 京 珠	YEO Kyeong-Joo	
14	바이즈(주)	대표이사	김 형 석	金 炯 碩	KIM Hyung-Seok	
15	부산재팬비즈	대 표	서 준 범	徐 準 汎	SEO Jum-Beom	
16	삼구TS(주)	대 표	권 구 태	權 九 泰	KWON Goo-Tae	
17	삼호무역(주)	대 표	호시 스바루	星 昂	HOSHI Subaru	
18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경제정책 자 문 관	장 필 수	張 弼 秀	CHANG Pil-Soo	
19	아태경제연구원	부 원 장	이 용 섭	李 龍 燮	LEE Yong-Seop	
20	YB무역	대표이사	이 정 국	李 廷 國	LEE Jeong-Kook	
21	은민양행	대 표	김 현 일	金 賢 日	KIM Hyun-Yel	

No.	소속/부서	직 함	성 명			비 고
			한글	한자	영문	
22	제오빌더	상 무	이 준 우	李 俊 雨	LEE Jun-Woo	
23	(주)GH홀딩스	과 장	이 명 수	李 明 洙	LEE Myung-Soo	
24	JIW 인터내셔널	C E O	홍 이 삭	洪 이 삭	HONG Isaac	
25	JIW 인터내셔널	C F O	조 혜 정	趙 惠 貞	Grace CHO	
26	법무법인(유)클라스한결	고 문	김 평 환	金 平 煥	KIM Pyeong-Hwan	
27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지도위원	홍 기 정	洪 起 正	HONG Ky-Jeong	
28	한일세무컨설팅	대 표 세 무 사	정 기 현	鄭 璣 鉉	JUNG Gi-Hyun	
29	현대자동차(주)	책 매 니 저	이 기 영	李 基 榮	LEE Ki-Young	
30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과 장	박 현 종	朴 峴 種	PARK Hyun-Jong	Observer
31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사 무 관	김 민 섭	金 玟 燮	KIM Min-Seop	
32	(사)한국무역협회 아주실	실 장	백 지 민	白 志 敏	PAIK Ji-Min	
33	(사)한국무역협회 아주실	차 장	김 재 호	金 在 浩	KIM Jae-Ho	
34	(사)한국무역협회 아주실	사 원	임 윤 호	任 潤 鎬	IM Yoon-Ho	
35	(사)한일경제협회	사무국장	조 덕 묘	趙 德 卯	CHO Duck-Myo	사 무 국
36	(사)한일경제협회	차 장	서 광 현	徐 光 賢	SUH Kwang-Hyun	
37	(사)한일경제협회	차 장	이 유 경	李 裕 卿	LEE You-Kyong	
38	(사)한일경제협회	연 구 원	김 지 안	金 志 按	KIM Jee-An	
39	(사)한일경제협회	연 구 원	김 현 정	金 賢 廷	KIM Hyun-Jung	
40	한일 동시통역사		김 혜 원	金 惠 媛	KIM Hae-Won	
41	한일 동시통역사		이 정 남	李 定 南	LEE Jeong-Nam	
42	유어미디어	실 장	박 세 연	朴 世 妍	PARK Se-Yeon	
43	홀드미디어	실 장	조 민 구	曹 民 久	CHO Min-Gu	
44	홀드미디어	과 장	장 현 재	張 珖 宰	JANG Hyun-Jae	

□ 일본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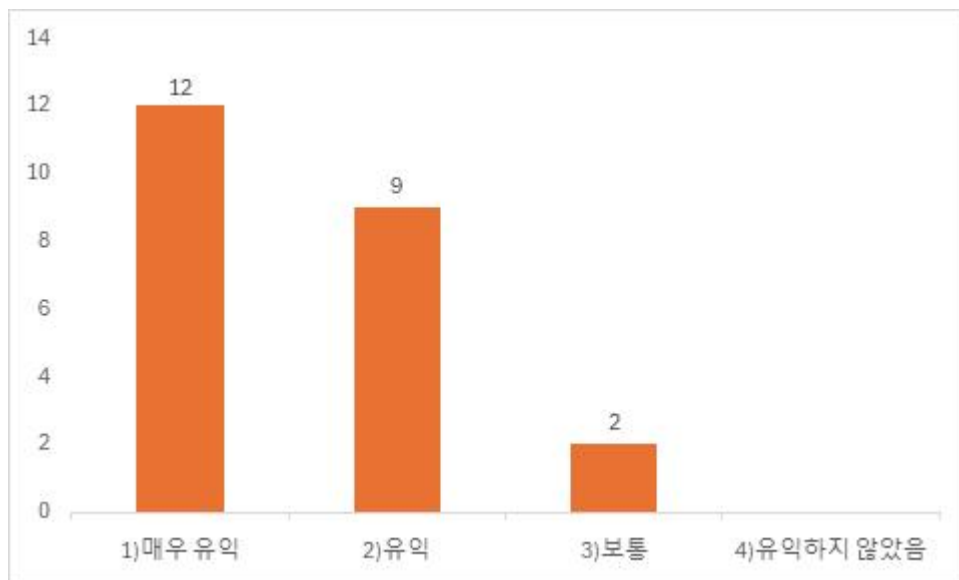
일본측 기재 順

No.	소속/부서	직 함	성 명			비고
			한글	한자	영문	
1	(일사)일한경제협회 아소시멘트(주)	부 회 장	아소 유타카	麻生 泰	ASO Yutaka	체 어 맨
2	오비린대학교 비즈니스매니지먼트학부	준 교 수	이와다레 요시히코	岩垂 好彦	IWADARE Yoshihiko	코디네이터
3	ANA홀딩스(주) 그룹경영전략실 경영기획부	부 장	가지키 하루부미	梶木 晴史	KAJIKI Harubumi	1세션 발표
4	미야기현 서울사무소	소 장	이치카와 슈	市川 修	ICHIKAWA Shu	2세션 발표
5	한국미쓰비시상사(주) Seoul Japan Club	대표이사 이 사 장	마츠우라 테즈야	松浦 哲也	MATSUURA Tetsuya	
6	한국미쓰이물산(주)	대표이사 사 장	이구치 카즈히로	井口 和容	IGUCHI Kazuhiro	
7	미쓰비시UFJ은행 서울지점	지 점 장	나카무라 신키치	中村 伸吉	NAKAMURA Shinkichi	
8	한국마루베니(주)	대표이사 사 장	마사토미 류이치	正富 竜一	MASATOMI Ryuichi	
9	한국도레이(주)	부 대 표	규노 모토히사	及能 誠久	KYUNO Motohisa	
10	일본항공(주) 한국지점	지 점 장	가도와키 토시미츠	門脇 俊光	KADOWAKI Toshimitsu	
11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서울사무소	소 장	마에카와 나오후키	前川 直行	MAEKAWA Naoyuki	
12	일본상공회의소 서울사무소	소 장	오사토 텃페이	大里 徹平	OSATO Teppei	
13	(주)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한국대표	가토 요시로	加藤 芳郎	KATO Yoshiro	
14	(주)롯데아사히주류	대표이사	미야마 키요시	深山 清志	MIYAMA Kiyoshi	
15	(주)마이ナビ코리아	대표이사 사 장	나기라 타로	柳楽 太郎	NAGIRA Taro	
16	전일본공수(주) 서울지점	지 점 장	시라토리 코지	白鳥 康二	SHIRATORI Koji	
17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차석공사	미바에 다이스케	實生 泰介	MIBAE Taisuke	Observer
18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참 사 관 경제부차장	야마고 다카히로	山後 貴弘	YAMAGO Takahiro	
19	JKSFF	대 학 생	오비 코헤이	小尾 航平	OBI Kouhei	
20	(일사)일한경제협회	고 문	고레나가 카즈오	是永 和夫	KORENAGA Kazuo	사 무 국
21	(일사)일한경제협회 (일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우치다 토시아키	内田 敏明	UCHIDA Toshiaki	
22	(일사)일한경제협회 (일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상무이사	나카야마 요시아키	中山 喜昭	NAKAYAMA Yoshiaki	
23	(일사)일한경제협회 (일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상무이사	츠츠미 노리히데	堤 儀秀	TSUTSUMI Norihide	

No.	소속/부서	직 함	성 명			비고
			한글	한자	영문	
24	(일사)일한경제협회 청소년교류센터	센 터 장	김 유 정	金 侑 貞	KIM Yu-Jung	사 무 국
25	(일재)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일한중소기업정보교류센터	센 터 장	오카모토 준	岡本 峻	OKAMOTO Jun	
26	(일사)일한경제협회	총 무 부	이사와 마사코	伊沢 雅子	ISAWA Masako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설문 결과

1. 제25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23명)



2. 좋았다면 그 이유는?

- 같은 고민을 해온 기업인들과의 정보공유 및 기술동향 등을 나눌 수 있었고, 어떻게 서로 협업을 해나갈것인지 insight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음
- 한일국교정상화 60년에 대한 평가가 좋았음
- 실행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매우 좋았음
- 신산업 기술 습득의 계기가 되었음
- 인적교류가 활발해서 좋았음
- 수소 승용 상용 Bus를 개발 및 실용화 관련 내용을 알게 되어 유익했음
- 세미나 내용이 좋았고, 다양한 직업의 전문가 등 교류 가능했음
- 경제 현안과 관광 교류 유익하였음
-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 같음

- 현장에서 한일 양국의 의견 교류가 가능했음
- 내용이 시의적절함
- 대면하여 서로 인사 나누고 비즈니스 교류가 활성화되어 좋았음
- 한일 양국 간의 정부 당국자, 기업들이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가능했음
-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회의 개최에 의미를 부여함

3. 아쉬웠던점은?

- 행사에 그치는 느낌이 아쉬웠음

4. 주제발표 및 회의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에 대해서

-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경영 환경 가운데서 한일 양국간 서로 공생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허들은 많겠지만 지금의 시간은 의사결정의 신속·정확·중요의 관점에서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임
- 협의 된 사항을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제안한 사항들을 follow-up해서 차기 회의에서 진척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겠음
- 미래지향적 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어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
- 2번째 참석인데, 구체적인 교류/사업이 진행된다면 좋을 것 같음
부산 등 각 지역들의 참석도 필요할 것 같음
- 한일 경제인들과 친분을 쌓고 네트워킹되어 너무 좋았음
- 수소 모빌리티의 한일 협력으로 더 많은 시장을 넓혀 나갈수 있고,
미야기현의 상호 교류를 open하여 한국에서도 많이 경험하고
한국도 관광을 광고하게 될 것 같아서 좋았으며, 잘 모르는 부분을 다시 인식하여 좋았음
-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한 사무국에 감사
- 매우 유익하였으며 회의 기획 진행에 수고한 사무국에 감사
- 토의가 가능한 테마를 정해서 토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장이 되기를 바램
- 수소자동차의 산업 동향, 한일간 여행자 교류 동향, 미야기현의 한국 기업체의 수용 노력 등을 알 수 있었기에 참여 보람이 있었음
- 매우 유익하였음 개최를 위해 수고한 사무국에 감사
- 아주 좋은 자리였음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편안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음

- 지속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는 협회 구성원들에게 감사
회의에 기업들도 참가하는 새로운 패턴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함
아울러, 향후 신산업에 기반한 한일간 중소기업간 신산업 교류협력사업이
전개되기를 희망함 그간 회의 참석자들에게는 여러 행사 시,
홈페이지 확인과는 별도로 안내를 위한 사전 연락이 있었음 좋겠음
- 양국간 비즈니스 협력사례 혹은 진행하고 싶은 협력사업 예정 및 계획 등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
- 한일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기업 섹터에서 해야 할 과제를 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음
- 한일 교류에 대한 성과 평가와 향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희망
- 영남·큐슈 동일한 생활권과 경제권에 대해 설명하고 싶음
- 헬스케어, 메디컬, 고령화 사회 관련 산업에 대한 주제 선정을 희망
- 기후 변화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 희망
- AI 등 신기술 비즈니스 적용사례 및 교류 세미나가 진행되길 희망
- 한일 기업 간 기술 교류 협력사업(전시회, 박람회, 상담회, 교육,
이업종교류, 정보교류회 등) 전개 희망
- 한일FTA에 대해 사무국으로서 어려움을 많이 표현했지만, 경제계에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눈치 볼 필요 없이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토록
하는 것이 좋겠음. 차기 회의에서도 한일FTA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공유하길 바람



<주요인사 단체사진>



<회의 전체 전경>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양국 체어맨>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양국 대표인사>



<본회의 전경①>



<본회의 전경②>



<개회인사 : 이인호 한국측 চে어맨>



<개회인사 : 아소 유타카 일본측 চে어맨>



<코디네이터 인사 : 이수철 GH홀딩스 회장>



<코디네이터 인사 : 이와다레 요시히코 오비린대학 교수>



<주최기관 인사 :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주최기관 인사 :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제1세션 : 김용태 현대자동차그룹
상무·에너지&수소정책실장〉



〈제1세션 : 가지키 하루부미 ANA홀딩스
경영기획부장〉



〈제2세션 : 이형오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제2세션 : 이치카와 슈 미야기현서울사무소 소장〉



〈질의응답① : 김정 한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
부사장〉



〈질의응답② : 이구치 카즈히로 한국미쓰이물산
대표이사 사장〉



<질의응답③ :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질의응답④ : 미바에 다이ске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차석공사>



<질의응답⑤ : 서정해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질의응답⑥ : 야마고 다카히로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참사관·경제부차장>



<질의응답⑦ : 박현중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과장>



<질의응답⑧ : 마에카와 나오키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서울사무소 소장>



〈Reception : 인사말하는 이인호 한국측 চে어맨〉



〈Reception : 인사말하는 아소 유타카 일본측 চে어맨〉



〈Reception : 인사말하는 김종철 한국측 내빈〉



〈Reception : 인사말하는 미바에 다이ске 일본측 내빈〉



〈Reception : 양국 건배 제의①〉



〈Reception : 양국 건배 제의②〉



〈Reception 참가자〉



〈Reception 참가자〉



〈Reception 참가자〉



〈Reception 참가자〉



〈Reception 전경〉